

아내학대에 대한 적응의 영향 변인\*  
- Double ABCX 모델을 기초로 -  
Variable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Wife Abuse\*  
- Based on the Double ABCX model -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정혜정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Full-time Lecturer : Hyejeong Ch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stressors (psychological, sexual, and physical wife abuse), personal resource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appraisal(positive appraisal and downward comparisons) with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matic symptom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264 wives residing in Chonbuk-do and Kyonggi-do area.

The causal model was tested and modified by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using LISREL 7 program. Results showed that wife abuse had effect on adaptation indirectly through the latent variables of personal resource and appraisal, which influenced the adaptation directly. In addition, social support indirectly affect the adaptation through personal resource and appraisal. It was also found that all these variables explained 27.6% of the total variance of wives' adaptation, and that personal resources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 predicting the adaptation of the wives.

\* 이 연구는 1997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아내학대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류역사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고, 외부사회와 단절되었으며, 여성에게 가정 밖의 대안이 가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성의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내학대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사적인 가정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서구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아내구타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고, 여성의 기본권리는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임정빈·정혜정, 1997). 그 이후부터 아내학대에 대한 학문적 열기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아내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되거나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내학대 문제는 1980년대 이후에 학대받는 아내들이 자기보호를 호소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아내학대의 현황에 관한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기혼여성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아내폭력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아내학대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을 가져다 주며 자녀에게도 학대에 노출시킴으로써 자녀가 학대와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이 세대간 전수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영위되어야 할 가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깨지며, 결국에는 가정해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내학대를 예방하고 아내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고 시급한 과제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는 상담기관, 쉼터나 병원 등을 찾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 김광일, 1988; 신은주, 1995)와 일반 가정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 김정옥, 1987; 이영숙, 1986; 전춘애, 1988; 정복희, 1993; 정서영, 1996)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학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면이나 가정의 화목,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별거나 이혼 등의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또한 쉼터에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남편과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정으로 대책없이 돌아가는 비율이 59%라는 보고가 있다(최규현, 1996). 따라서 구조적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 아내들의 심리적 손상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반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입으며, 그들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편의 학대를 하나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개념화한 Carlson(1997)의 시각을 기초로 하여, 남편의 학대가 아내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중재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남편의 학대를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개념화한다면 학대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들은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Double ABCX 모델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Double ABCX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a, 1983b)에 의하면,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유용한 내적 잠재력인 자원과 전체 스트레스 상황에 부여하는 평가나 지각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결정된다. 이 모델을 아내학대 상황에 완전히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학대라는 스트레스원에 따른 가족의 긴장이나 요구의 누적이 포함되어 분석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보다 간명한 모델 설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구의 누적을 제외하고자 하

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남편의 학대에 대한 적응이 학대 그 자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다 자원이나 평가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Double ABCX 모델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아내학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영향 변인을 도출하여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아내학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남편의 학대상황에서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Gelles, 1994; Hodson, 1983; Walker, 1979, 1981), 그리고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평가(Herbert, Silver, & Ellard, 1991; McKenry, Julian, & Gavazzi, 1995)에 따라서 아내들의 적응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이나 평가 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변인이 아내학대 및 그에 대한 적응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우기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 및 관계평가 요인이 남편의 학대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요인들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과모형을 구체화시키고 그 이론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내학대 및 그에 대한 적응의 영향 변인들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아내학대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상황에서 유용한 자원과 평가 요인을 밝힘으로써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정체계의 길을 선택하기 보다 가정안에 머물면서 자녀양육과 가정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내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내학대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폭력, 구타 등의 용어와 별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일컬으며, 구타는 실제적으로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고,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및 비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여기서 비신체적 학대라 함은 연구자에 따라 그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지만, 구체적으로 ①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또는 아내의 성에 상처를 주겠다고 시도하는 행위인 성적 학대, ② 아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거나 주겠다고 시도하는 행위인 정서적 학대, ③ 아내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 그리고 ④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적 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이승렬, 1995). 이러한 비신체적 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심리적 학대로 명명하기도 하며, 여성학적 시각에서도 아내학대는 아내들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남편들의 모든 행위로 보며, 따라서 아내학대는 신체적, 성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urz, 1989, 1993; Pence & Paymar, 1993). 이와 같은 아내학대의 개념을 Carlson(1997)은 아내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아내의 복지를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아내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김정옥·류배희, 1997; 김혜선, 1995; 박경규, 1994; 손정영·유영주, 1998; Follingstad 등, 1990; Johnson, 1995)에 의하면, 심리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보편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신체적 학대의 전조 또는 결과가 되거나 신체적 폭력과 함께 일어나며,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아내학대간에는 높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나 폭력은 학대받은 아내들의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의 약화를 가져오며 심리적 복지를 손상시키고 신체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 2.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가장 자주 연구되는 요인은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이다.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 이론의 대표자인 Bandura(1982)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관리할 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스트레스원에 대한 사회심리적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스트레스원에 대처함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감을 심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불안과 우울감을 덜 경험한다. 또한 한 개인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스트레스적 생활경험의 정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을 자주 경험하거나 그 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고 Bandura(1982)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자주 그리고 심하게 경험할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심리적 적응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인적 자원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정의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기거부, 자기멸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Rosenberg, 1965). Lazarus와 Folkman(1984)은 자존감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한 개인적 자원이라고 하였고, Carlson(1997)도 학대받는 여성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존감은 학대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즉,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은 학대로 인한 심

리적 손상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학대받는 여성들이 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학대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매 맞는 아내들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Walker(1979, 1981)도 남편으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에 손상을 입고 결국에는 우울감을 더 높게 경험한다고 하여, 학대상황에서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원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자주 분석되는 대처자원으로서,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애정적·정서적 관심, 물질적·도구적 도움, 충고와 정보제공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원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을 고찰한 Cutrona와 Russell(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심리적 및 신체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했으며,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원은 또한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응수준을 높인다(Major, Cozzarelli, Sciacchitano, Cooper, Testa, & Mueller, 1990).

매 맞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Hodson(1983)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구타에 대한 친구들의 정서적 관심과 감정이입적 반응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친구들의 회피적 반응은 자기통제력 및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그리고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은 우울감과 부적 상관이 그리고 자기통제력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Gelles(1994)도 친구, 가족,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폭력적 반응을 매개한다고 하여 학대와 사회적 지원과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대받는 아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자기통제력이나 자존감 등의 개인적 자원의 강화를 가져오며 우울감 등의 심리적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 3. 관계 평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는 스트레스원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 스트레스원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다. 아내학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원이므로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아내학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ckenry 등(1995)은 가정폭력의 발생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질에 주목하면서 가정폭력이 부부간 친밀감의 변화, 부부갈등, 결혼만족, 의사소통과 협상능력의 감소, 그리고 남편의 강제적 통제의 시도 등의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남편으로부터의 학대 상황에서 아내들의 인지적 평가 요인에 주목한 Herbert 등(1991)은 학대남편을 떠난 아내들보다 학대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이 부부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더 높게 평가했고 또 미혼시절이나 다른 부부관계와 비교할 때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다는 하향비교 성향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학대부부와 일반부부간의 부부관계 특성을 비교한 Langhinrichsen-Rohling, Smutzler와 Vivian(1994)은 학대부부보다 일반 부부들이 의사소통과 애정표현 등의 부부관계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아내학대와 부부관계에 대한 평가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학대는 부부관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아내의 심리적 및 신체적 적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 4. 적응

적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일종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부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의 연속선상 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극단은 부적응으로서 개인적 수준에서는 심리적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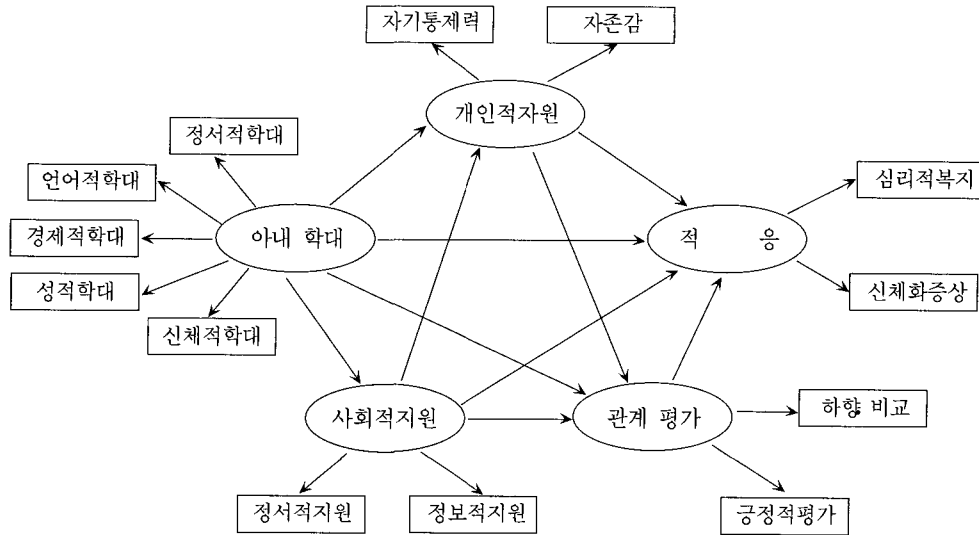
신체적 건강의 저하 또는 악화로 나타나며,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극단은 순적응으로서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의 유지나 강화로 나타난다(McCubbin & Patterson, 1983a).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기초로하여 적응 결과를 심리적 복지와 신체화 증상의 두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Liang(1985)에 의하면 심리적 복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의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불안, 우울, 동요, 걱정, 비판 등 부정적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아내학대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대받는 아내들은 불안과 우울 등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뿐 아니라 두통과 불면,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광일, 1988; 최규련,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Carlson, 1997; Gelles & Harrop, 1989).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신체적·심리적 학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정서영, 1995)에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심리적 학대는 아내의 안정감과 우울감이라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내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적응은 남편의 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 및 관계평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 5. 연구문제와 연구모델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지원, 부부관계에 대한 평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남편의 아내학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지원, 그리고 관계 평가 요인은 아내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남편의 아내학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지원 및 관계 평가 요인이 아내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림 1〉 가설적 모델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적 모델은 Double ABCX모델을 참고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이론변수는 아내 학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지원, 관계 평가 및 적응의 다섯 개이며, 각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즉 아내학대는 정서적·언어적·경제적·성적·신체적 학대로 측정되며, 개인적 자원은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으로,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으로, 그리고 관계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하향비교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적응은 심리적 복지와 신체화 증상의 두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표집

본 연구자료는 전북 전주시와 전북 소재 읍·면 단위, 경기도 성남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통해 가능한 무작위 방법에 의해 선택된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한 후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로 인해 쉼터 등의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일반 가정의 아내들에게만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능한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본 질문지의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질문지를 개별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고, 응답한 후 질문지를 봉투에 넣고 바로 봉할 수 있도록 봉하는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라는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총 35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나 233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29부를 제외한 264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 1) 아내학대 측정

아내학대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 Hudson과 McIntosh의 ISA(Index of Spouse

Abuse, 1981), 그리고 Pence와 Paymar(1993)를 참고로 하여 아내학대 척도를 구성한 김병수의 연구(1999)에서 이용된 4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학대 19문항, 언어적 학대 10문항, 경제적 학대 5문항, 성적 학대 3문항, 그리고 신체적 학대 10문항이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경험하였을 경우 그 빈도를 5점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정서적 학대는 Cronbach's  $\alpha=.92$ , 언어적 학대는  $\alpha=.87$ , 경제적 학대는  $\alpha=.68$ , 성적 학대는  $\alpha=.84$ , 그리고 신체적 학대는  $\alpha=.93$ 이었다.

## 2) 개인적 자원

자기통제력은 Pearlin과 Schooler(1978), Chung 등(1996)과 송현애(1993)의 연구를 참조하여 4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에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응답 범주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alpha=.67$ 이었다. 또한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7개의 문항을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76$ 이었다.

사회적 지원은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Barrera, Sandler, & Ramsay, 1981)를 수정한 Krause(1987)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사회적 지원의 여러 하위영역 가운데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은 거의 모든 스트레스원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Cohen과 Wills(1985)의 주장에 따라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만을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원에 관한 8문항과 정보적 지원에 관한 6문항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주 받는지를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검사결과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모두  $\alpha=.89$ 이었다.

## 3) 관계 평가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하향비교는 Herbert 등(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측정하였는데,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정표현, 상호간 신뢰와 존중, 집안일 분담에 관한 4문항을 5점 Likert식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77$ 이었다. 하향비교는 응답자의 현재 부부관계를 미혼시절 및 다른 부부관계와 비교하는 3문항(예, "다른 부부관계와 비교할 때, 우리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하향비교 정도가 높아 현재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alpha=.90$ 이었다.

## 4) 적응

적응은 심리적 복지와 신체화 증상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심리적 복지는 Liang(1985)의 심리적 복지 척도 중 행복감에 관한 6문항과 Ulbrich(1988)의 우울감 척도 10문항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도록 점수화하였으며, 신뢰도 검사결과  $\alpha=.90$ 이었다. 불면,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화 증상은 장하경과 서병숙(1992)의 연구를 토대로하여 5점 Likert식 척도 5문항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이 높음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alpha=.80$ 이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내의 평균연령은 38세이고 남편의 평균연령은 41세로 약 85%정도의 아내들이 30대와 40대였으며 20대는 10.6%(28명) 그리고 50대 이상은 3%(8명)였다. 아내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40.4%(104명), 고졸 36.9%(96명)였고 중졸이하도 60명(23.1%)으로 평균 교육연도는 12.46년이었으며, 남편의 평균 교육수준은 13.37년이였다. 아내의 취업유무를 보면 전업주부가 135명(53.4%), 시간제 취업을 포함한 취업주부가 46%(118명)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을 보면 전문·관리직이 62명인 25%, 사무직이 45명(18.1%), 판매 및 서비스직 61명(24.6%), 생산·운수·노무직이 38명(15.35%), 그리고 농어업 및 기

〈표 1〉 아내학대 경험의 경향

	N (%)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없다	15( 6.0)	35(13.9)	113(43.8)	147(56.5)	154(66.1)
경험 있다	233(94.0)	216(86.1)	145(56.2)	113(43.5)	79(33.9)

타가 42명으로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 자녀수는 2.35명이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가 전체의 57.9%(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도 75명(31.0%)이나 되었다. 평균 월수입은 200만원으로 101~200만원이 전체의 48.4%(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도 66명(27%)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26명(10.7%)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월평균 수입은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보다 조금 낮았다. 또 조사대상자의 74.4%(195명)가 핵가족의 가족형태를 이루고 살았으며, 나머지가 확대가족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75% (28명)였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기독교가 110명(42.2%), 불교가 61명(23.4%)이었다.

## 2.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델 분석에 앞서 아내학대의 일반적 경향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어느정도 경험하였는가는 등간척도에 의한 평균으로 산출되지만, 여기서는 각 문항의 학대를 지난 1년동안 경험한 경우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그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233명)라는 거의 대다수의 아내들이 지난 1년동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86%(216명)의 아내들이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경제적 학대는 56%의 아내들이 경험하여 일반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를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학대보다는 낮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나, 그래도 44%의 아내들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33.9%(79명)의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섯가지 이상의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78.1%의 아내들이 비신체적 학대를, 그리고 44.9%의 아내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정서영(199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일반 가정에서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내들도 남편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아내학대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또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내학대의 5개 유형 중 신체적 학대만이 아내의 교육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r=-.28, p<.01$ ), 다른 학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는 유의한 관계 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내학대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아내학대 유형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학대의 유형들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가 어떤 특정유형만이 발생한다기 보다 신체적 및 비신체적 학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주장(예, 김혜선, 1988; Pence & Paymar, 1993)과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아내학대를 예방하고 아내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 등 비신체적 학대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모델의 검증

### 1) 모델의 부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 구체화한 가설적 모델의 검증은 상



<표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정서적 학대	1.00													
2. 언어적 학대	.86	1.00												
3. 경제적 학대	.75	.67	1.00											
4. 성적 학대	.50	.54	.35	1.00										
5. 신체적 학대	.48	.55	.20	.52	1.00									
6. 심리적 학대	.96	.94	.75	.53	.53	1.00								
7. 정서적 지원	-.04	.02	.03	-.08	-.13	-.04	1.00							
8. 정보적 지원	-.01	-.02	.03	-.12	-.17	-.01	.85	1.00						
9. 자기통제력	-.39	-.33	.34	-.22	-.16	-.37	.17	.09	1.00					
10. 자아존중감	-.37	-.36	.34	-.25	-.20	-.38	.28	.19	.55	1.00				
11. 긍정적 평가	-.48	-.36	.39	-.17	-.23	-.43	.33	.27	.45	.36	1.00			
12. 하향 비교	-.46	-.34	.33	-.14	-.26	-.38	.20	.13	.41	.38	.65	1.00		
13. 심리적 적응	-.35	-.29	.23	-.17	-.11	-.32	.18	.08	.49	.51	.42	.48	1.00	
14. 신체화 증상	.22	.21	.09	.10	.06	.24	-.05	-.02	-.23	-.28	-.20	-.30	-.49	1.00

관관계 자료(표 2)를 기초로 하여 최대가능법에 의한 공분산분석을 LISREL 7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우선 가설적 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가설적 모델의 부합도는  $\chi^2 = 184.95$  ( $df=55$ ),  $GFI=.902$ ,  $AGFI=.838$ ,  $RMR=.054$ 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는 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을 찾기 위해 대안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대안적인 모델은 부합도와 간명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모델을 수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가설적 모델 분석 결과 산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X1(정서적 학대)과 X3(경제적 학대), X2(언어적 학대)와 X5(신체적 학대), X3(경제적 학대)와 X5(신체적 학대), 그리고 X4(성적 학대)와 X5(신체적 학대)의 측정오차(TD)간의 수정지수가 1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측정오차의 공변량을 고정특징수에서 자유특징수로 자유화시킬 경우 부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이순복(1990)은 동일한 척도

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론적으로 예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측정오차의 공변량을 고정특징수에서 자유특징수로 수정하는 것은 모델수정에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변수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두 측정변수간의 측정오차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강병서, 1999).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아내학대의 유형들(즉, 측정변수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아내학대의 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델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아내학대의 측정변수들이 본 연구자료에 맞게 잘 구성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내학대의 5개 유형은 국내외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정되었으나 중소도시의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그 요인구조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을 묶어서 심리적 학대로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델수정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해당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강병서, 1999),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학대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으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분석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분리하여 직각회전법에 의해 실시하였는데,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비신체적 학대는 4개요인이 추출되었으나 21문항으로 구성된 제1요인이 전체변량의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남편이 신체적·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수단에 의해 심리적으로 아내를 학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심리적 학대'로 명명하였다. 또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3문항이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나머지 두 요인은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고 또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내용을 묶어 독립된 요인으로 구성하기에는 각 요인의 특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이차 요인분석은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모두 투입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세 요인이 예측한 대로 추출되었고 각 요인에 해당 문항들이 적절히 잘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델에서는 아내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세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모델에 대한 검증은 모델의 부합도를 별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델을 간명화하는 방법, 즉  $t$ 값(고정지수)이 작은 자유특징수를 0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쓰면서 이론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델을 수정하였다. 또한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측정오차간의 수정지수가 10이상으로 나타나 이 측정오차간의 공변량을 고정특징수에서 자유특징수를 자유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채택한 수정모델의 부합도는  $\chi^2 = 65.20(df=35, p=.001)$ , GFI = .959, AGFI = .923, RMR = .048로 부합도가 많이 높아졌으며 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수정모델의 분석

수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측정모델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3>에 있고 구조모델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2>는 이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정모델의 구조경로계

<표 3> 측정모델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 내 학 대	심리적 학대	1.00	.00	1.07
	성 적 학대	.47*	.09	.50
	신체적 학대	.47*	.09	.50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1.00	.00	1.07
	정보적 지원	.75*	.09	.80
개인적 자원	자기통제력	1.00	.00	.73
	자아존중감	1.03*	.11	.75
관계 평가	긍정적 측면	1.00	.00	.83
	하향 비교	.93*	.09	.78
적 응	심리적 복지	1.00	.00	.95
	신체화 증상	-.54*	.09	-.51

\*T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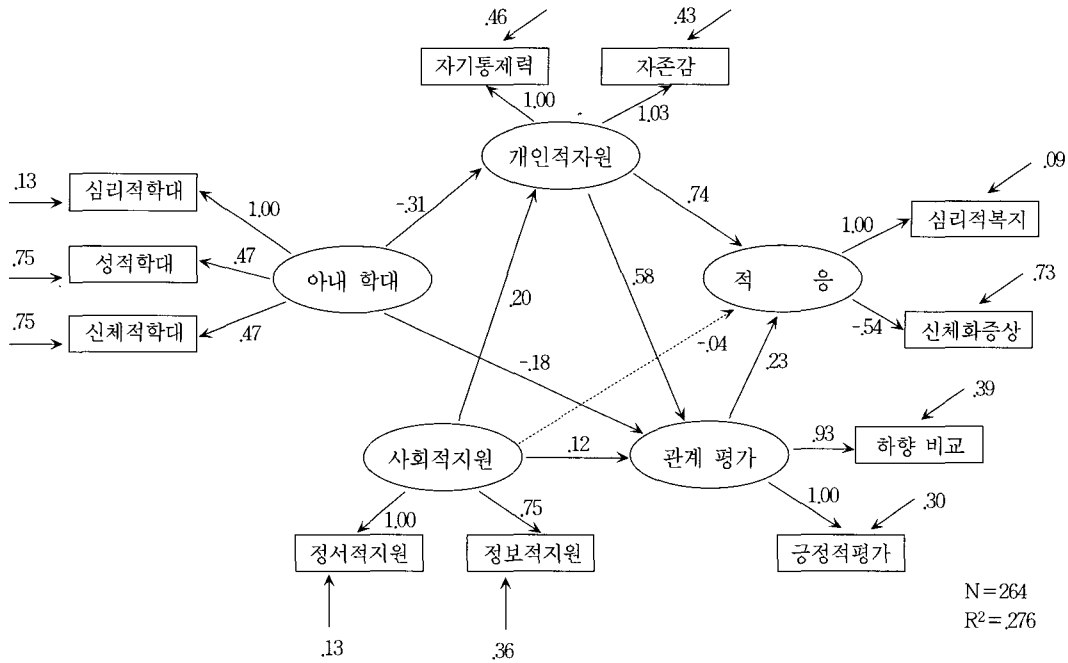
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이순목, 1990),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표 5>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모델의 구조경로계수는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과 같은 의미로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잠재변수에 대한 각 측정변수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 자원, 사회적 지원, 관계평가의 세 잠재변수들에 대한 각 측정변수들의 계수는 모두 고정된 값인 1.00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값을 보이므로 각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 잘 선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내학대의 측정변수는 심리적 학대를 1.00으로 고정시켰을 때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계수가 .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남편들로부터 받는 신체적 및 성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가 아내학대라는 이론변수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응의 측정변수인 심리적 복지와 신체화 증상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심리적 복지를 1.00으로 고정하였을 때 신체화 증상은 -.5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정의 아내들의 경우 남편들로부터의 학대가 신체화 증상보다 심리적 문제에

<표 4> 구조모델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아내 학대 → 개인적 자원	-.31*	.07	-.45	-4.64
사회적 지원 → 개인적 자원	.20*	.05	.28	3.85
아내 학대 → 관계평가	-.18*	.06	-.23	-2.85
사회적 지원 → 관계평가	.12*	.05	.16	2.44
개인적 자원 → 관계평가	.58*	.11	.51	5.19
사회적 지원 → 적응	-.04	.05	-.05	-.88
개인적 자원 → 적응	.75*	.14	.57	5.23
관계 평가 → 적응	.23*	.11	.20	2.08

\* T > ±2.00



N=264  
R<sup>2</sup>=.276

<그림 2> 수정모형의 인과모델과 경로계수

\*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수정모델 분석시 고정지수(t값)가 작은 경로들을 0으로 고정시키면서 모델의 간명도와 부합도를 높이고자 했는데, 일차적으로  $\xi_1$ (아내학대)와  $\eta_1$ (사회적 지원)간의 경로를 고정시켰고 다음으로

$\xi_1$ (아내학대)와  $\eta_4$ (적응)간의 경로를 고정시켰다. 이는 결국 아내학대가 사회적 지원과 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아내학대는 개인적 자원 및 관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으로부터

〈표 5〉 수정모델의 전체 효과 분석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아내 학대	→ 개인적 자원	-.31	X	-.31
사회적 지원	→ 개인적 자원	.20	X	.20
아내 학대	→ 관계평가	-.18	-.18	-.36
사회적 지원	→ 관계평가	.12	.11	.24
개인적 자원	→ 관계평가	.58	X	.58
아내 학대	→ 적응	X	-.31	-.31
사회적 지원	→ 적응	-.04	.20	.16
개인적 자원	→ 적응	.74	.14	.88
관계 평가	→ 적응	.23	X	.23

터의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통제력과 자존감 등의 개인적 자원의 약화를 가져왔고, 또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결국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자원과 평가 요인은 스트레스원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이론적 기초 (McCubbin & Patterson, 1983a, 1983b)를 지지하는 것이며, 또한 학대받는 여성들은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이 손상되고 결국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Walker (197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째, 사회적 지원은 개인적 자원과 관계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이 강화되었고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자기통제력이나 자존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Hudson, 1983; Major 등, 1990)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적 지원이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개인적 자원과 평가요인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적 자원의 강화와 관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이는 결국 심리적·신체적 적응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결과는 또한 스트레스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기초와 경험적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라는 스트레스원이 사회적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이나

정보적인 지원이 남편의 학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나, 일단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결국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째, 개인적 자원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관계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내들이 자신의 주변 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수록 자신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았는데,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라는 McCubbin과 Patterson (1983a, 1983b)의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남편들로부터의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개인적 자원은 더 많이 손상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통제력이 약화된다는 Bandura (1982)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아내학대 상황에도 적용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내들이 자신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관계 평가 요인은 또한 아내학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내들이 부부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중시하고 또 미혼시절이나 타인의 부부관계에 비해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학대남편을 떠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Herbert 등(199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관계 평가는 개인적 자원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자기통제력이 상황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울감이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82)의 시각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들의 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전체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표 5),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으로 측정된 개인적 자원이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아내학대, 관계평가, 사회적 지원의 순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아내학대와 그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Double ABCX 모델의 이론적 틀을 참조로 하고 또 아내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인과모델을 구체화하였고 이 모델이 본 연구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분석으로서 아내학대의 일반적 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가 다양한 유형에 걸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여러 학대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았다. 이는 아내학대가 극히 일부 부부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신체적 학대가 심리적 및 성적 학대와 더불어 나타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아내학대의 예방과 대책 수립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아내학대 유형을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심리적 학대를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학대로 보다 더 세분화한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명함(parsimony)을 추구하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유형을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정된 갈등척락척도(CTS2: Straus, Hamby, McCoy, & Sugarman 1996)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부부에게 다당항가를 분석한 손정영과 유영주(1998)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학대하는 남편과 학대받는 아내를 대상으로 일하는 임상가들은 심리적 학대가 언어적인 수단과 아내의 경제적 의존의 강화, 그리고 자존감과 자율성에 상처를 주는 수단을 통하여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 아내학대라는 이론변수는 신체적 및 성적 학대로부터 받는 효과보다 심리적 학대로부터 받는 효과가 더 높았다. 또한 적응은 신체화 증상으로부터 받는 효과보다 심리적 복지로부터 받는 효과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경험하는 학대는 심리적 학대의 경향이 더 강하며 그에 대한 적응은 신체적 손상보다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Johnson(1995)은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가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경향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 형태는 가부장적 폭력 행위(patriarchal terrorism)로서 주로 쉼터나 병원 등을 찾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경우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심한 경우로서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심리적 손상뿐 아니라 신체적 문제까지 심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일반 가정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학대 연구(common couple violence)로서 남편의 신체적 학대는 간헐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며 아내들의 신체적 손상이 비교적 덜하다고 보고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Johnson의 이러한 지적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아내학대는 적응에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결과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는 아내들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개인적 자원과 관계 평가 요인을 통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대를 받으면서도 가정에 머무르는 아내들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남편의 학대 자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보다 아내들의 자기통제력과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부부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중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것은 아내학대 문제를 학대받는 아내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대하는 남편들도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스트레스적 생활경험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본 연구결과,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지원 그 자체는 개인적 자원을 강화시키고 관계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적응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내학대 상황에도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지원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받는 아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마련은 결국 학대받는 아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내학대와 그에 대한 적응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족스트레스 모델이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기초 없이 행해진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려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데 어떠한 요인들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 뿐 아니라 학대 상황에서 아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원과 평가요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내학대 상황에서 Double ABCX 모델의 완전한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학대에 따른 가족의 긴장이나 요구의 누적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중소도시와 읍면단위 거주자에 국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직까지 이론의 정립이나 발전단계에 못미치는 우리나라의 아내학대 연구를 Double ABCX 모델에서 제시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이론적 기초 위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사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또 일반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내들과 복지기관이나 병원 등을 이용하는 피해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론적 틀 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학대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 그것이 실제 복지서비스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강병서 (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 2) 김경화 (1985). 아내학대의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도시가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광일 (1988).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4) 김병수 (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김정옥 (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김정옥·류배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0.

- 7) 김혜선 (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8)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효성여대 박사학위 논문.
- 9) 손정영·유영주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45-160.
- 10) 송현애 (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신은주 (1995). 아내 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12) 이순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13) 이승렬 (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컴퓨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이영숙 (1986).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15) 임정빈·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16) 전춘애 (1988).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이대 석사학위 논문.
- 17) 정복희 (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 18) 정서영 (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대 석사학위 논문.
- 19) 장하경·서병숙 (199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63-276.
- 20) 최규련 (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03-130.
- 21) 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의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3)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24) Barrera, M., Sandler, I. N., & Ramsay, T. B.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35-447.
- 25) Carlson, B. E. (1997). A stress and coping approach to intervention with abused women. *Family Relations*, 46, 291-298.
- 26) Chung, H., Crawford, D., & Fischer, J. (1996). The effects of conflict with mothers-in-law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of Korean daughters-in-law.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5(1), 57-78.
- 27)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28) Cutrona, C. E., & Russell, D. W. (1987).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stress. In W. H. Jones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 29) Fa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J., Hause, E. S., & Polek, D. S.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30) Gelles, R. (1993). Through a sociological len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In R. Gelles & D.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31) Hudson, W. W., & Mchintosh, S. R. (1981).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Two quantifiabl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73-884.
- 32) Herbert, T. B., Silver, R. C., & Ellard, J. H. (1991). Coping with an abusive relationship: I. How and why do women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1-325.
- 33)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 34) Krause, N. (1987). Chronic financial 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 185-192.
- 35) Kurz, D. (1989). Social science perspectives on wife abuse: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Gender and Society*, 3, 489-505.
- 36) Kurz, D. (1993). Physical assaults by husbands: A major social problem. In R. Gelles & D.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37)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38) Langhinrichsen-Rohling, J., Smutzer, N., & Vivian, D. (1994). Positivity in marriage: The role of discord and physical aggression against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9-79.
- 39) Liang, J. (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5), 552-561.
- 40) Major, B. N., Cozzarelli, C., Sciacchitano, A. M., Cooper, M. L., Testa, M., & Mueller, P. M. (1990).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52-463.
- 41)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89). Theoretical orientations to family stress and coping. In C. R. Figley (Ed.), *Treating stress in families*. NY: Brunner/Mazel.
- 42) McCubbin, H. I., & Patterson, J. (1983a). Family transitions: Adaptation to stress. In H. I. McCubbin & C. R. Figley (Eds.), *Stress and the family, Vol. I: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NY: Brunner/Mazel.
- 43) McCubbin, H. I., & Patterson, J. (1983b).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1-2), 7-38.
- 44)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07-320.
- 45)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2), 163-186.
- 46) Pence, E., & Paymar, M. (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 47)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8)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7.
- 49) Straus, M. A.,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50) Straus, M. A., & Sweet, S.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46-357.
- 51) Walker, L. (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and Row.